

카리브해 빨랭께데산바실리오 (Palenque de San Basilio) 흑인공동체의 저항으로서의 역사, 기억으로서의 문화

차경미(경희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저항으로서의 역사
- III. 기억으로서의 문화
- I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17세기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빨랭께(Palenque), 킬롬보스(Quilombos)¹⁾, 맘비체스(Mambices), 콤베스(Cumbes), 라데이라스(Ladeiras)와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시마론(Cimarrón) 공동체가 존재했다. 시마론은 “엔틸레스 제도의 말로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화살”이란 뜻으로 도주한 흑인 노예를 말한다. “시마론은 식민 시대의 고름덩어리”(에두아르도 갈레아노 2005, 40)였다. 원래 빨랭께는 장엄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말뚝을 박아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밀폐된 공

* Kyung-Mi Cha(Kyung Hee University, cha-mi@hanmail.net), “La historia como resistencia, la cultura como recuerdo de la comunidad negra de Palenque de San Basilio”

1) Quilombo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사용하던 가장 대표적 언어중 하나인 kilombo로부터 유래한다. 앙골라 북쪽과 짐베브웨 혹은 Mbun 예전 영토 일부분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 기본적으로 앙골라와 루완다 지방에서 사용한다.

간을 의미했다. 17세기 이후 빨랭계는 시마론들이 계곡과 협곡에 만들어 놓은 은신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식민시대 존재했던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빨랭계는 강가 줌바(Ganga Zumba)에 의해 운영되었던 브라질의 킬롬보도스빨메레스(Quilombo dos Palmares)였다. 현재 브라질 알라고아스(Alagoas)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했으며, 포르투갈 크기의 영토를 장악했다. 3만 여명의 시마론들이 17세기 거의 전 기간 동안 독자적인 체제와 문화를 유지하며 식민노예제에 대한 저항을 지속했다. 킬롬보도스빨메레스는 포르투갈군 6천명이 동원된 2년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결국 해산되었다. 17세기말 페루 리마 도시 부근 우아치빠(Huachipa), 까라바이요(Carabaylo) 그리고 몬떼삼브라노(Monte Zambrano)에 빨랭계가 형성되었다. 식민당국의 추격으로 일부는 파괴되었고, 생존한 일부 시마론들이 인적이 드문 계곡으로 이동하였으며, 1710년경 한곳에 정착하여 새로운 빨랭계를 형성했다. 1811년 독립을 선언한 베네수엘라의 빨랭계는 매우 상징적이다. 미란다(Miranda)와 바르가스(Vargas) 지역을 주 거점으로 고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뻘라레스(Penisulares)로부터 까라까스(Caracas)의 독립을 촉구하기도 했다(Zeuske 1998, 65-84).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의 독립을 위한 저항은 아니었지만, 식민 노예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시마론들의 단합된 조직력을 보여준 중요한 역사였다.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흑인 빨랭계들은 식민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인접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변용을 경험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하는 빨랭계로는 멕시코 우스마신따(Usumacinta)강 부근 치아파스(Chiapas) 고대마야 도시 빨랭계가 있으나, 흑인 시마론 공동체로서의 빨랭계는 콜롬비아 카리브 해 연안도시 까르타헤나 데인디아스(Cartagena de Indias)에 위치한 빨랭계데산비실리오와 파나마 콜론지방에 도시들 그리고 에쿠아도르의 로스리오스(Los Ríos) 지역의 빨랭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빨랭계 중 콜롬비아의 빨랭계데산비실리오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보전하며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흑인 시마론 후손들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빨랭계데산비실리오는 라틴

아메리카 시마론들의 저항의 역사적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먼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아프리카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독창적인 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한 집단적 기억의 공간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시마론 공동체 문화가 거의 소멸 되거나, 원주민 문화와 수입된 문화 그리고 정복자의 위치를 갖춘 백인 문화와 혼합된 것에 반해, 빨랑게데산바실리오는 시마론 후손 공동체로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투쟁한 아프리카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곳이다(Friedemann 1998, 79-81).

1930년대 중반 정권을 장악한 콜롬비아 자유당 정권은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현대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공유지와 미개간 국유지에 대한 개인소유화는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토지집중 현상이 심화되었고,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빈곤화가 초래되었다. 1930-1945년 사이 정부-Enrique Olaya Herrera 1930-1934; Alfonso López Pumalejo 1934-1938; Eduardo Santos Montejó 1938-1942; Dario Echandía Olaya 1943-1944-가 실시한 토지개혁법을 통해 공유지의 흡수 합병과 공유지의 불하정책 등으로 급격하게 발전한 토지의 사적소유화는 빨랑게데산바실리오의 광활한 토지가 지역의 독점세력에게 점유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인근지역의 공업 성장과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시 노동력 증가로 농민들의 도시이주가 촉진되었으며, 토지로부터 농민들의 이탈을 가속화 했다. 특히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농민의 이주는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María 1991, 48). 이러한 토지 사유화로 인한 경제, 사회 체제의 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랑게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1940년대 중반까지 의미있는 외부와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빨랑게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인종적 혼혈의 경험이 적었고, 사회조직과 문화 속에 아프리카의 전통이 생명을 유지하고 리듬을 가지며 발전되어왔다. 아메리카대륙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 그들만의 크리오요 언어를 창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대 그룹인 마-구아그로(Ma-Kuagro)에 기초한 독창적인(Sui Generis)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의식

에서는 다분히 전통적인 룬발루(Lumbalú)와 같은 장례문화 그리고 분명히 종교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전통 의학을 보존,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영혼의 세계와 현실세계의 거리는 멀지 않고 그 경계도 모호하여 일상생활 속에 영혼세계가 공존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상 숭배는 그 어떤 종교보다 우선한다.

빨랭께테산비실리오 흑인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부문에서 국내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으나(김우중 2001) 공동체 역사와 전통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는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본 논문은 국내 학계에 소개되지 않는 빨랭께테산비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빨랭께테산비실리오 형성배경을 통해 아프리카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저항의 역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특징을 통해 독창적인 아프리카메리카 문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없었다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는 지금과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계기로 1940년대 중반이후 시작된 빨랭께테산비실리오 흑인공동체의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사회와 경제적 변화를 수반했고, 이러한 변화들은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전통과 변환의 경합을 둘러싼 비교 연구는 다음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전통적인 이념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전통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변화는 지극히 피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삶의 측면일 뿐이다. 사유방식과 정서 혹은 신앙과 같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전통적인 사상은 아직도 빨랭께테산비실리오 사회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형식적인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II. 저항으로서의 역사: 빨랑게 형성과정

빨랑게데산비실리오는 콜롬비아 카리브 해 중심 도시 까르타헤나 데인디아스로 부터 약 70Km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3천 5백 명이고, 예전에 빨랑게였던 말라가나(Malagana), 산가예타노(San Cayetano), 산빠블로(San Pablo), 그리고 빨랑끼또(Palenquito)와 경제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식민지 기니비사우(Guinea Bissau)공화국 비오호(Biohó)지방에서 탄생한 벵코스 비오호(Benkos Biohó) 혹은 도밍고 비오호(Domingo Biohó)로 알려져 있는 시마론에 의해 1603년에 형성되었다.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흑인 독립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포르투갈 상인 페드로 고메스(Pedro Gómez)에게 팔려 아메리카로 들어와 알론소 델 캄포(Alonso del Campo)에 의해 콜롬비아로 강제 이주했다. 1599년 도주에 성공하여 1601년 까르타헤나데인디아스 남동쪽 몬테스테마리아(Montes de María) 계곡 디케(Dique)지역에 정착했다. 군대를 조직하여 몬테스테마리아 전 지역을 장악 한 이후, 흑인 노예들의 도주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Antonio 2001, 237-257).

17세기 패트런적 권위(2)하에 중세 봉건 영지와 유사한 하나의 폐쇄적인 단위였던 아시엔다(Hacienda)의 발전은 시마론 수의 증가와 빨랑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1589-1631년 사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토지를 점령한 스페인은 17세기 흑인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에 주력하였고, 토지 집중이 가속화됨으로써 아시엔다가 형성되었다. 아시엔다는 식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였던 원

2) 패트런의 명확한 의미는 중세유럽의 주종제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봉건제도 하에서 법과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때 무력을 가진 자들이 사적인 도당을 형성하면 그의 우두머리는 군주가 되고 그의 신하는 봉신이 되었다. 봉신은 군주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군주는 봉신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며 봉토를 수여함으로써 이들 사이에는 주종관계가 성립한다. 국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아래 기사 까지 중첩되어 형성된 이러한 다층적 주종관계에서 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패트런이다. 패트런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거의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간섭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누렸다. 김기현(2007), 「식민시대 연구의 중요성과 식민지유산」, 외대중남미 연구, Vol. 19, No. 1.

주민 노동력으로 경영되었으며, 노동력의 이용형태는 거의 노예제와 유사했다.

아시엔다 형성이후 지주 계급의 기반 위에 등장한 크리오요(Criollo) 계급은 무역과 관련된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크리오요들은 식민 체제 유지를 바탕으로 계급의 우월로부터 파생된 권력과 특권을 통해 경제적 부를 독점하기 위한 아시엔다를 형성했다. 유럽에서 지주계급 등장 이후 매우 상이한 계급인 상업 부르주아가 형성된 것에 반해 누에바그라나다(Nueva Granada)에서는 지주계급의 출현과 함께 상업 부르주아가 지주계급 내부에서 탄생되었다. 아시엔다는 크리오요에 의해 수출용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근대적 대규모 농업경영과 함께 대토지 소유제를 바탕으로 발전되었다. 아시엔다 경제체제의 모든 가치는 노예 노동력 사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관계는 오직 가혹한 형벌과 복종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흑인노예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수단으로써 불가항력의 노동체제를 발전시켰다.

17세기말 아시엔다의 집중적인 발전은 아시엔다로부터 도주하여 이탈하는 흑인 노예의 증가를 초래했다. 개인적으로 도주한 시마론들은 빨렁게를 형성하기 위해 한 장소로 집결했고, 식민노예제에 대한 저항으로 플랜테이션농장에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콜롬비아에는 35개 이상의 빨렁게가 존재했다. 이러한 빨렁게 시마론들의 활동은 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 반-독립(Semi-Independencia)운동으로 연결된 조직화된 빨렁게 형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까르타헤나데인디아스 인근 지역 북쪽으로 시에라데루루아꼬(Sierra de Luruaco)지역에, 남쪽에는 세라니아데산루카스(Serrania de San Lucas)지역 그리고 중앙지역은 시에라데마리아에 체계적인 빨렁게들이 형성되어 조직적으로 식민체제에 대한 투쟁을 주도해 나아갔다(Singh et al. 1998, 11).

식민당국의 흑인 시마론에 대한 공격과 체포 그리고 가혹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누에바그라나다의 모든 지역에서 빨렁게 형성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콜롬비아 대서양 지역에 형성된 주요 빨렁게인 라마투아나(La Matuna), 따바칼(Tabacal), 산바실리오, 산안페로(San Antero), 산미겔(San Miguel), 엘아레날(El Arenal)과 베탄꾸르(Betancur)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탄생한 흑인 끄리오요들의 독점 지역이었던 씨에라데투루아꼬에 마뚜데레(Matudere) 빨랑게는 아프리카메리카 디아스포라 저항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Borrero 1983, 53).

스페인 정복자들의 추격과 공격으로 빨랑게는 파괴되어갔고, 생존한 시마론들이 한곳에 정착하여 새로운 빨랑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시마론들은 자체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체 행동 강령을 만들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했다. 빨랑게데산바실리오의 경우처럼 지도자도 선발하여 식민체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해 나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빨랑게 투쟁은 완전한 자유 획득과 영토 확보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저항의 강도가 거세질수록 조직적인 빨랑게들은 식민당국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619년 까르따헤나데인디아스 지역 빨랑게의 시마론들이 자유를 선언하고 토지 쟁취를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식민당국이 더욱 가혹한 방법으로 시마론들을 추격하고 빨랑게 해체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Escalante 1981, 226-227).

비오호 지휘아래 전개되는 시마론의 조직적인 저항은 1605년 7월 18일 까르따헤나데인디아스 정부가 시마론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1612년 디에고 페르난데스(Diego Fernández) 새 정부에 의해 상호공존 평화협약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빨랑게 사회와 조직을 인정하고 비오호가 빨랑게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대신 빨랑게의 시마론들은 자유를 찾아 도주한 흑인노예들의 빨랑게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노예들의 도주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1619년 비무장 상태였던 비오호가 까르따헤나데인디아스 거리에서 체포당하고, 1621년 3월 16일 처형당하자 그 효력을 상실했다. 비오호 사후 시마론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17세기 말 몬페스테마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시마론들은 비오호가 통치하던 마뚜아나 빨랑게에 집결했다. 그리고 도밍고 빠디아(Domingo Padilla)를 중심으로 마뚜아나 빨랑게를 재정비하여 현재의 빨랑게데산바실리오를 형성했다.

시마론과의 지속되는 전쟁에 지친 정부는 1713년 마리아 데 까시

아니(María de Casiani) 주교의 중재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빨레에게 데산바실리오스 스페인 지배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된 것이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정부를 조직하였던 아메리카 최초의 흑인 자유 독립 지역이었다. 정부와의 재협상체결에도 불구하고 빨레계의 성장과 활동은 쇠퇴하지 않았다. 17세기 말 그 수는 2배로 증가했고, 18세기 전 기간 동안 흑인 노예에 의한 폭동과 도주는 확대되었다. 18세기 시마론들의 거센 저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자 쿠바,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자메이카와 수리남 식민정부는 시마론과의 협상을 통해 그들 공동체의 영토와 자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Arrázola 1970, 15).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워지자 억압적인 매카니즘을 기초로 부의 극대화를 통해 유지된 지주계급의 특권은 도전에 직면했다. 누에바그라나다는 식민 초기부터 광산물을 통해 시작된 중상주의와의 지속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을 통한 무역활동은 여전히 취약했다. 그러므로 원주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아시엔다 제도는 지속되었고, 이러한 지속은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농업 발전을 가능케 했다. 생산관계는 지배적인 아시엔다로부터 파생된 유산을 이어갔다.

18세기 초 지주계급의 이해에 충실한 새로운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틀이 마련되었다. 식민사회는 혼혈을 통해 인구가 팽창했으며, 다양한 사회세력이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 사회 질서로부터의 도피와 저항을 시도한 흑인 시마론들에 의해 새로운 사회조직과 규범의 틀이 완성되었다(Jaramillo 1998, 168). 이러한 사회적 기초 위에 농장주 꼬리오요들은 아시엔다를 통해 사법적으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부 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부분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농민경제를 불평등하게 전개해 나갔다(Orlando 1975, 51-69; Kalmanovitz 1975, 38).

18세기 중반 이후 아시엔다는 흑인 노예 노동력과 함께 메스티소 소작농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함께 이용했다. 원주민 인구의 격감과 함께 원주민 부역 노동력 유지가 곤란하게 되자, 농장주가 직접 원주민을 고용해서 농장 안에 정주시키는 형태가 등장했다. 메스티소

소작농은 농장주에게 토지임대료로 생산품의 일부를 바치거나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고용형태의 노동력을 제공했다.

아시엔다의 고용노동은 목축업과 함께 확산되었고 노예 노동력은 더 저렴한 메스티소 노동력으로 대체되었다. 아시엔다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방대한 미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목축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팽창했다.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아시엔다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아시엔다에서는 노예 노동을 바탕으로 토지사용의 극대화를 통해 지주의 기회비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중 재배 농작물 생산에 주력했다.

19세기 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분적으로 노예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노예제 폐지는 풍부한 메스티소 노동력과 예외적 가사노동을 통해 강제된 메스티소 노동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주에게 메스티소 노동력은 1회 생산과정에서 그 이용가치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생산과정에서 고정적 기능을 한 다음, 그 내구성에 한계가 미칠 때 비로소 기능을 잃게 되는 고정자본이었다. 고정자본으로서 메스티소 노동력은 지주에게 생산의 기회를 잃게 된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제공해 주었다(Meisel 1983, 260).

1847년 1월 노예제 전면폐지 법이 공포되었고, 1852년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였고 명목상의 노예제 폐지였다. 노예제 폐지이후 자유인으로 돌아온 흑인 노예들은 기억의 땅 아프리카로 돌아가거나 대서양 연안의 아시엔다에서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군단을 형성했다. 19세기 노예제 폐지와 함께 시마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던 빨랭게도 그 의미를 상실했다. 콜롬비아의 시마론 후손들은 도시로 혹은 베네수엘라로 이주하였고, 빨랭게 공동체는 급격히 해체되거나 도시화되었다. 그러나 빨랭게데산바실리오 흑인 시마론 공동체는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생존했고, 1940년대 중반까지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III. 기억으로서의 문화: 마-구아그로, 빨랭계 언어, 전통종교

특정 집단의 문화는 특정한 사회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전승된 모든 행위 유형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권명식 1988, 8-9). 빨랭계데산바실리오의 문화는 풍부한 기억력과 상상력을 기초로 입에서 입을 통해 사실을 전승하는 구전형식으로 보존 발전되었으며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은 주로 연장자나 주술사 등 사회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전승되었다. 구전은 집단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구전의 중요한 역할은 과거의 집단적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김광수 2003, 36). 연령체계 사회조직인 마-구아그로, 상징적 표현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언어 그리고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장례음악과 전통의학 등은 빨랭계데산바실리오 공동체의 구전 전통의 중요성과 그들 문화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III.1. 연령체계 사회조직체 마-구아그로(Ma-Kuagro)

마-구아그로는 일종의 사회적 교환관계이며 빨랭계데산바실리오 사회와 경제적 특징을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빨랭계데산바실리오 혹은 공동체는 그들의 주요 경제활동인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노동 교환을 축으로 하는 품앗이가 존재한다.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장례식 등 경조사에 역점을 두는 계도 있다. 공동체 문제를 집단 의견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모임, 제사를 통한 조상과 자손의 관계, 초자연과 인간의 통신 관계 등등은 모두 마-구아그로의 주요 활동이고 목적이기도 하다. 호혜적 맥락의 제도로 이해 될 수 있는 연령체계 사회조직체인 마-구아그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다. 마-구아그로는 빨랭계데산바실리오 사회의 부조문화를 대표하기도 한다. 부조와 관련된 제도의 의미 분석은 집단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전경수 1999, 83-88).

빨렛게데산바실리오의 주요 경제 활동은 목축업과 농업이다. 아프리카 유목민으로서의 조상들의 경험과 17세기 아시엔다 대농장에서 습득된 선조들의 축척된 지식이 구전을 통해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지식과 경험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구전의 방식을 통해 입으로 전해졌다. 빨렛게데산바실리오에서 지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었다. 지식은 그들 선조들의 명백한 사회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구전을 통해 후세들은 사회의 관습과 규범, 축척된 지식 그리고 조상들의 편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빨렛게데산바실리오에서 목축은 경제활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통유지와 조상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기도 했다.

노예제 폐지와 함께 빨렛게 토지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가 인정되었으나 빨렛게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다. 토지는 집단소유 형태와 공동생산 방식을 통한 집단권리가 존재했다. 주민 모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생산품에 대한 소유 권리는 일한 자만이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아프리카 일부종족에서 나타났었던 형태로써 그 모형을 그대로 유지했다(Evans 1982, 89-91). 생물학적인 성에 기초한 성 차별적인 역할 분담이 주어졌으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구조는 성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재생산 되었다. 경제활동은 내부 소비를 위한 것이었고, 공동체 사회 재생산을 위한 것이었다.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방식의 경제체제를 기초로 빨렛게데산바실리오 사회는 마-구아그로라는 연령체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조직체를 형성했다. 빨렛게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마-구아그로의 기능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위계질서 그리고 연령에 따른 권위가 존재했다. 중앙집권을 이루지 못한 사회의 경우 대부분이 연령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연령체계 속에서 연장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필리스마틴 / 매티릭오메아라 2002, 92-96).

마-구아그로는 콜롬비아 아프리카아메리카 디아스포라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사회조직의 분체이며 빨렛게데산바실리오는 마-구아그로에 기초한 독자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547개의

종족 혹은 민속 문화 중 단지 4%의 종족만이 연령에 기초한 사회조직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체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아프리카의 23개 종족문화 중 16개 문화에서 연령체계가 발견된다”(Friedemann 1997, 130). 오늘날 우간다의 소가, 간다, 뇨로, 토로, 치가의 각 종족, 루안다의 부룬디족, 콩고의 루안다, 룬디, 바시, 훈데의 각 종족, 탄자니아의 하야, 진자, 케레웨의 각 종족을 포함하는 반투족은 목축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각 종족에 따라 ‘상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집단이 있어 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마-구아그로의 경우도 연장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연령에 기초하여 회원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들의 모든 사회 행동을 통제해왔다.

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에 관한 역사 기록에서 빨랭게데산바실리오가 유일하게 연령 체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조직체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조직체가 빨랭게데산바실리오 혹은 공동체에서 생존 가능했던 것은 단순히 아프리카적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한다는 차원은 아니었다. 이것은 시마론들이 식민행정당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공동생존전략 방식으로써 아프리카적 전통을 수용하여 발전된 문화인 것이다. 마-구아그로는 시마론들이 협동과 단결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의 연령체계 문화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빨랭게 사회의 독특한 문화이다(Maria 1991, 48). 빨랭게데산바실리오 주민들은 마-구아그로라는 집단적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지켜나갔으며 소속감을 향상시켜왔다. 그리고 재앙이 닥쳤을 때 정체성은 그 집단의 재산이 되었다.

마-구아그로는 가족과 공동체를 연결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빨랭게데산바실리오에서 혈연관계가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기능해 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마-구아그로이기도 하다. 마-구아그로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만남의 기회를 가졌고, 결혼으로 가족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빨랭게데산바실리오 사회에서 결혼은 사회의 구성인인 죽은 사람, 현존하는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삶의 필수조건이며 남편과 아내는 모두 자식을 통해 재현된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나 선조의 흔적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연속은 출산을 통한 개인의 육체적 지속 속에 영구히 이어져나간다는 믿음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종교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빨렛게데산바실리오 사회는 마-구아그로를 통해 연장자나 조상을 통해 물려받은 공동체의 도덕과 가치를 전승해오고 있다(Gutiérrez 1976, 315).

마-구아그로는 시마론 후손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중대한 사회적 사건 및 회원들의 경조사를 통해 공동체 가치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은 그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현재도 마-구아그로는 빨렛게데산바실리오 공동체의 농번기 그리고 결혼과 장례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협동정신에 바탕을 둔 호혜제도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III.2. 빨렛게 언어

인간의 문화는 상징에 기초하고 있고 문화를 영속 시킨 것 또한 상징이었다. 상징적 표현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언어를 통해 문화가 시작되었다. 문화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징능력에 의존하고 있다(최협 2008, 68-69). 빨렛게데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의 삶과 의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빨렛게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아프리카어의 어휘를 수용하면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어로부터 유래된 어휘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체 고유 언어를 사용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아프리카사람들은 공동의 상징적 표현이 절실했고, 아메리카로 들어오는 긴 여정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의 언어를 습득해야만 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도주했던 아프리카사람들은

스페인어 보다는 포르투갈어에 익숙했고, 이후 빨랭계에는 포르투갈어를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던 많은 시마론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까르파헤나데인디아스를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빨랭계 언어를 스페인어의 사투리라고 생각했다. 신세린(Sincerín) 제당공장에서 기술자로 그리고 바랑끼야(Barranquilla)와 같은 인근 대도시에서 노동자로서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했던 일부 빨랭계 주민들도 자신의 언어가 사투리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언어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1972년 “키드 팜벨레”(Antonio Cervantes Kid Pamele)로 불리던 빨랭계 출신 권투선수가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세계 챔피언(WBA 주니어웰터급)으로 등극하자 콜롬비아 사회에서는 빨랭계 흑인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는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빨랭계 주민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스페인어의 사투리가 아닌 그들만의 독자적인 언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구성면에서도 독자적인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언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언어는 크레올어로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아프리카어와 앤틸레스 제도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새로운 문법체계를 통해 빨랭계 언어로 재탄생된 것이다. 빨랭계 언어에서 아프리카의 영향은 끼꿉고, 앙골라, 루앙고어 어휘에서 발견된다. 특히 이러한 언어들의 영향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나 조직의 상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휘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Tatá는 아버지, mae는 어머니, moná는 아들, maaná는 젊은이고, 경제활동과 관계있는 어휘로서는 ngombe는 소, ngubá는 땅콩, burú는 돈이다. 그리고 사회조직과 종교에 관한 어휘는 Kankamaná는 지도자, 학자는 sabio, nkusi는 우상, kutu는 권력 등등이다(Singh et al. 1988, 13).

빨랭계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아프리카어에서 파생된 반투(Bantú)어라고 말한다. 반투는 아프리카 언어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카메룬을 거쳐 중앙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로부터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대략 4백여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다. 앙골라 잠비

아, 츠아나족, 콩고,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민의 80%가 반투계 흑인이다. 반투는 서로 친연관계를 갖는 수많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³⁾ 이 어족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설이 현저히 다르지만 공통적인 음운적(音韻的) 특징으로서는 개음절(開音節)만이 있다는 것과 악센트의 위치가 뒤에서 두 번째의 음절에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현저한 문법적 특징은 접두사의 음형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명사가 존재하며, 더구나 명사를 수식하는 어(명사에 후속하는)가 선행하는 명사에 따라 다른 접두사를 취하는 데 있다(Dieck 2000, 75).

그러나 반투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유사한 4백여 언어의 집합이다. 빨랭께 언어는 반투계 언어가 아니다. 그 문장론의 특성은 아프리카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장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법적 체계를 갖춘 독창적인 언어가 창조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크레올어 중에서도 빨랭께데산바실리오의 언어는 사회 문화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 생성된 독자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다.

빨랭께데산바실리오 크레올어는 음성, 형태소, 구문, 어휘 할 것 없이 “최소의 노력으로 의사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음운론적 특징으로는 표준스페인어의 특징과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지방 방언(Costeño)의 영향을 받아 스페인어 표준발음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ndoló(dolor), ndo(dos), nda(dar)와 같이 스페인어로부터 기원된 낱말 앞에 아프리카언어의 특징을 반영하여 [n]이나 [m]을 약하게 붙여 발음하는 ‘비음첨가’ 현상이 발견된다.

형태론적 특징으로는 표준스페인어에서 보이는 어미변화형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명사와 형용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형용사는 남성형태소가 여성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는 관사, 지시사, 소유사와 같은 형태소는 성수의 변별력이 없고, 스페인어의 정관사는 생략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Una casa bonita는 Un kasa bonito로, Esa nata es

3) 1856년 W.브리크의 제창으로 반투라는 호칭이 부여되었으나 이것은 이들 언어의 ‘사람(복수)’을 의미하는 반투에 근거하고 있다. 오늘날 반투어를 사용하는 종족이 아프리카 대륙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sucio는 Ese nata es sucio로, La gente está durmiendo는 Jende ta ndrúmí로 El blanco está buscando는 Blako ta buká로 표현한다. 그러나 los camiones를 ma kamion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복수형은 아프리카 반투어에서 온 형태소 ma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소유형용사는 후치형만 사용한다. mis dos manos는 ma ndo mano mí, sus tierras는 ma tiela ané, las gallinas de ustedes는 ma nganía utere로 표현한다.

동사의 경우 시제(tiempo), 태(voz), 인칭(persona)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수많은 어미형은 거의 다 소멸되어 단순화되었고, 이를 보완할 기능인 “빠르띠꼴라(partícula)”가 발달되어 새로운 언어의 형태를 갖추었다. 동사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현재시제를 표현할 때는 ta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sé를 각각 동사원형 앞에 첨가한다. Pueblo mí ta pelé lengua ané(Mi pueblo está perdiendo su lengua), í sé kumé(Yo como). 그리고 ‘현재 이전의 행위’는 haber동사의 3인칭 변화형인 ha에서 파생된 á를 동사원형 앞에 첨가한다. 예를 들어보면 í á sembrá(Yo sembré), suto á bae a jugá(fuimos a jugar), Carlos á kojé(Carlos ha tomado). 또한 과거의 진행, 반복, 습관을 나타내는 표준 스페인어의 불완료과거형 -aba/-ia는 -ba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taba(estaba), sabeba(sabía), bibiba(vivía). 미래형은 동사원형 앞에 tan을 함께 사용한다. Carlos tan asé(Carlos hará), í tan ablá(voy a decir).

어순 및 구분상의 특징으로는 모든 문장의 어순이 ‘주어+술어+목적어+보어’순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미변화형이 소멸된 단순 형태소만으로는 문장 내에서의 어휘의 기능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된 어순을 통해 이러한 변별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스페인어의 경우 (Tú) nos engañaste와 Nos engañaste(tú)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빨렝게어에서는 Bo á engaña suto는 Tú nos engañaste로 Suto á engaña bo는 Nosotros te engañamos라는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한다(김우중 2001, 53-62).

III.3. 종교와 전통문화

빨랑께데산바실리오 주민들의 사유방식 또는 생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종교일 것이다. 전통종교가 아무런 손상도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될 수는 없었지만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소를 몰고 씨를 뿌리며 수확을 거두는 장소에도 종교는 있고, 장례식이나 질병을 치료할 때도 종교는 늘 그들과 함께한다. 세상안의 실제적인 인간의 모든 행위는 종교적 이해와 의미를 통하여 인식되고 경험되는 것이다. 종교는 빨랑께데산바실리오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있으며 종교를 다른 일상생활로부터 구별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빨랑께데산바실리오의 전통종교는 공동체의 삶속에서 서술되고 있다. 종교는 문서로 기록되어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성 그리고 구전되는 역사와 의례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전통적인 문화배경을 지닌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다.

빨랑께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형성과 함께 시작된 룬발루 장례음악은 시마론 후손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입으로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구전전통방식을 통해 전통을 계승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대표한다. 끼꿉고 언어로 슬픔 또는 향수로 번역되는 룬발루는 살아있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을 재활용하고 경험의 감성적인 면을 재창조하는 빨랑께데산바실리오 전통음악의 대표 장르이다. 룬발루는 탐보레스(Tambores)와 바따따(Batata)를 주 연주도구로 사용하는 시적인 노래 형태의 장례음악이다. 룬발루는 전통을 미학적으로 표현하여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의식적 행위의 한 형태로 사용된다. 빨랑께데산바실리오만의 독특한 장례음악으로서 룬발루는 “[...] 시마론 후손들과 아프리카에 대한 먼 기억을 깊숙이 연결해 주는 마지막 관습인 것이다”(Schwegler 1996, 60).

장례식장은 고인의 좋았던 순간과 남은사람들이 고인과 함께 나누었던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노래와 춤이 동반된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개인은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그들 알고 지낸 친구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그의 유족들에 의하여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사람들은 그의 사람됨, 성격, 그의 언어 그리고 그가 살면서 한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으면 이미 죽은 사람도 아울러 죽는다. 아프리카 종교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사자”(living-dead)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의 세계 속에 살아 있듯이(존 S. 음비티 2007, 61-65) 빨렝게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에서 고인은 그를 생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다.

빨렝게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공식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이와 같이 그 의식과 형태는 매우 아프리카적이다. 특히 죽음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통종교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죽음을 통해 고인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단절되지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연결의 지속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염원이 장례 음악 속에 표출된다.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영속적인 과정으로서 죽은 후에 삶이 지속된다는 그들의 신앙은 고인의 또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부예렝게(Bullerenque)와 마빨레(Mapalé)와 같은 격렬한 음악과 춤을 발전시켰다. 빨렝게데산바실리오의 장례식은 절제된 고통이 림발루를 통해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고인의 출발은 경쾌한 리듬과 격렬한 몸짓의 부예렝게와 마빨레로 표출됨으로써 장례식은 마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림발루, 부예렝게 그리고 마빨레와 같은 빨렝게데산바실리오의 전통음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이 혼합되어 있다. 그들의 음악은 아프리카 전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의 결과들을 만들어왔다. 림발루는 1920년대 들어 인근 제당공장 지역으로 이주한 일부 빨렝게 노동자들에 의해 실험적인 새로운 형태의 음악들을 생산해 낸다. 신세린 제당공장에서 일하던 빨렝게 노동자들은 쿠바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고단한 일상의 외로움을 달랬다. 쿠바의 손(Son)은 림발루와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라파엘 까시아

니(Rafael Cassiani)는 섹스폰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인 따발라(Tabalá)를 결성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따발라에 의해 장례음악인 부예렝게와 톰발루는 쿠바의 손과 결합하여 빨렝게손(Palenque son)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탄생시켰다. 에스뜨레야스 데 까리베(Estrellas de Caribe)라는 보컬그룹은 콜롬비아 카리브 해 지역에서 자이레(Zaire) 혹은 참빠떼(Champete)로 불리는 현대음악을 빨렝게 전통음악과 접목시켜 팜보레스와 전자기타를 기본으로 하는 오키끼(Okiki)를 창조했다(Singh et al. 1988, 20). 이와 같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통음악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은 빨렝게 손과 부예렝게 쉐따도(Bullerenge Sentado)와 같은 그들이 자기표현을 위해 새로 만든 장르 속에 살아있다. 이 장르는 공동체의 의식적인 생존의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통 노래와 음악은 그들 공통의 경험과 관심에 대해 상징적으로 언급한다.

한편, 빨렝게데산바실리오의 전통의학도 종교와 관계를 유지한다. 전통의학은 아프리카와 콜롬비아 카리브지역 원주민 세누(Zenú)의 전통이 접목되어 전문화된 지식으로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 구전으로 전승된 전통문화의 일부인 것이다. 전통의학에서 초자연적 세계는 다른 한편으로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들에게 그것은 현재이다. 콩고의 우주관(Cosmovisión)과 마찬가지로 장례식 때 고인은 톰발루 춤과 음악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슬픔과 애도를 통해 죽음과 동떨어진 또 다른 3개의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 한 영혼은 빨렝게와 반대되는 세계이고 다른 영혼은 신의 세계인 하늘로 그리고 마지막 영혼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늘 머물게 된다. 조상신들은 항상 현실세계 주위에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조상신들은 후손의 어려운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때로는 충고도 아끼지 않는 어진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므로 조상신은 빨렝게데산바실리오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기도 하다(Antonio 2003, 87-96).

빨렝게데산바실리오 사회에서 신은 본질적으로 선한 분으로 여긴

다. 재난으로부터 구해주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비를 내려 토지를 비옥하게 한다. 질병으로부터 치유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의 뜻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치유가 되면 비록 의술이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빨렛께데산바실리오 사회는 주술이 종교적 배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전통의학과 주술의식은 빨렛께데산바실리오 공동체가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프리카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전통의사는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의료인이자 주술과 점술을 행하는 주술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동체 내부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점술가나 전통의사는 종교적인 중개자 및 종교전문가로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다. 점술사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신의 대리자이며, 따라서 그를 의사로, 연령집단을 정확시키는 자로, 적의 침입을 예고하고 비가 오도록 간구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믿고 있다(존 S. 음비티 2007, 144-151). 빨렛께데산바실리오 사회에서도 중개자의 위치와 기능은 종교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자의 역할은 아프리카와 유사한 주술사나 전통의사 혹은 연장자들이 종교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장자는 가족의 종교적인 제의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희생제의 기도 등을 행하는 사제들을 도와주면서 지역적인 공동제의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교량의 구실을 담당한다.

빨렛께데산바실리오 공동체에서 영혼의 세계와 현실세계의 거리는 멀지 않고 그 경계도 모호하여 일상생활 속에 영혼세계가 공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육체와 영혼과의 뚜렷한 경계가 없다. 질병은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통의사는 영혼과 육체를 조화롭게 연결해 주는 촉매역할을 담당한다. 전통의사는 목욕을 하고 누워있는 환자의 몸에 마추까(Machuca), 바사미나(Basamina) 그리고 콜리센시아(Colocencia)와 같은 약초를 뿌리며 영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치료한다(2008년 2월 현지 전통의사와의 인터

류). 전통의사는 주술을 통해 영혼과 살아있는 사자의 본성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방법을 체득하여 질병 치료에 적용한다. 그는 건강에 대한 바람, 악으로 부터의 방어와 안전, 부정에 대한 정화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약초, 나뭇잎, 뿌리, 열매, 나무껍질, 풀 등 의학적 치료효과와 그 사용법에 관한 지식을 배워 활용하고, 입에서 입을 통해 지식을 전승하여 전통지식을 보존 발전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지식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해야 하는 전통인 것이다.

IV. 맺음말

17세기 흑인 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운영된 아시엔다의 발전은 아시엔다로부터 도주하여 이탈한 시마론의 증가를 초래했다. 시마론들은 빨랑께를 형성하여 식민노예제 폐지 및 반-독립(Semi-Independencia)운동을 전개하는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노예제 폐지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시마론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거나 혹은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변용을 경험한 것에 반해 빨랑께데산바실리오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흑인 시마론 후손들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빨랑께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역사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저항의 역사이고 그들의 문화는 아프리카에 대한 먼 기억의 파편들이 모여 새롭게 재창조된 집단적 기억인 것이다. 우리가 빨랑께데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 사회와 문화 대해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는 소멸로 인한 보전적 가치보다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흑인사회의 문화가 점점 서구 사회를 닮아가고 있으며 인구가 급속히 변동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빨랑께데산바실리오 사회는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방식의 경제체제를 기초로 콜롬비아 아프리카아메리카 디아스포라에서 유일하게 나타

나는 사회조직체인 마-구아그로를 형성했다. 마-구아그로는 빨레께 주민의 집단적 경험을 통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향상시켜왔으며 혈연관계가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기능해 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 담당해왔다. 마-구아그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령체계 집단으로서 빨레께데산바실리오 사회는 그 기능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위계질서 그리고 연령에 따른 권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빨레께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새로운 문법체계를 통해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아프리카어와 앤틸레스 제도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독창적인 빨레께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빨레께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문화는 아프리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인간적 경험은 입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 상상 속에서 과거와 관계를 지니면서도 현재 지향적인 혁신의 혼합된 활력은 그들의 전통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전통문화는 빨레께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를 긍정적이면서 자생적으로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의 전통은 영속적인 저장고인 구전을 통해 격리된 과거를 연결하는데 이러한 빨레께데산바실리오 구전 전통 중 가장 중요한 형태는 장례음악인 룬발루라고 볼 수 있다.

룬발루는 가장 대표적인 전통음악으로서 전통을 미학적으로 표현하여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의식적 행위의 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음악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뿐만 아니라 부예렝게센파도와 빨레께손과 같은 그들이 자기표현을 위해 새로 만든 장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또한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통의학은 주술을 통해 영혼과 살아있는 사자의 본성을 파악하여 질병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전통이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현에 권위를 부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빨레께데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저항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집단적 기억의 공간으로서 독자적인 사회와 문화를 유지하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투쟁한 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삶을 이어가는 라틴아메리카 유일의 빨레께로 존재하고 있다.

Abstract

Palenque de San Basilio es una comunidad fundada por los cimarrones en el siglo XVII. Durante la época de la colonia existían numerosos Palenques. Pero San Basilio es el único Palenque que ha permanecido hasta nuestros días luchando conservar su identidad y sus elementos culturales propios. Por esta razón, Palenque de San Basilio simboliza la resistencia de la diáspora africana por la abolición de la esclavitud, la reivindicación étnica, la convivencia y el reconocimiento de la diversidad cultural.

Palenque de San Basilio tiene rasgos particulares únicos, ya que sus habitantes son descendientes de antiguos cimarrones, con lengua propia, con una organización social sui generis basada en los ma-kuagro (grupos de edad) y con rituales fúnebres como el lumbalú o prácticas médicas tradicionales. La comunidad palenquera de San Basilio se trata de un grupo que se distingue por su origen, por su historia y por su tradición. Es una comunidad poca mezcla étnica en su interior, mientras que las comunidades negras de las regiones caribeñas se caracterizan por ser mezcla de varios grupos étnicos. Es este un hecho que determina el interés por el Palenque de San Basilio como objetivo de estudio. Este trabajo nos permitiría desarrollar herramientas de carácter importante para continuar la investigación sobre la comunidad de Palenque de San Basilio.

Key Words: Palenque de San Basilio, Diaspora Africana, Resistencia, Sui Generis, Identidad/ 팰랑께데산바실리오, 아프리카디아스포라, 저항, 독창적인, 정체성

논문투고일자: 2008. 04. 10

심사완료일자: 2008. 04. 21

게재확정일자: 2008. 05. 06

참고문헌

- 김광수(2003), 「아프리카역사학과 구전전통의 중요성」, 아프리카연구 16호.
- 김우중(2001), 「남미콜롬비아의 San Andrés와 Palenque de San Basilio 지역의 사회 및 언어학적 혼성 현상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연구 20호.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2005), 『불의기억 2』(박병규 역), 따님.
- 전경수(1999), 『인류학과의 만남』, 서울대학교출판부.
- 존 S. 음비티(2007) 『아프리카의 종교와 철학 上』(정진홍 역), 한국학술정보.
- 최협(2008),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 풀빛.
- 필리스마틴/ 매티릭 오메아라(2002), 『아프리카』(김윤진/김광수 공역), 다해.
- Antonio Parada Fortul(2001), *Benkos: Las alas de un Cimarrón*, Colombia: Editorial Antillas.
- _____ (2003), *Orika: La gacela de la madrugada*, Colombia: Casa Editorial.
- Arrázola, Roberto(1970), *Palenque: Primer pueblo libre de América*, Cartagena de Indias Colombia: Ediciones Hernández.
- Borrero, Plá María del Carmen(1983), *Palenque de negros en Cartagena de Indias a fines del siglo XVII*, Sevilla: Escuede Estudios Hiapanoamericanos.
- Dieck, Marianne(2000), “La negación en palenquero”, *Análisis sincrónico, estudio comparativo y consecuencias teóricas*, Madrid: Iberoamerica -Vervuert.
- Escalante, Aquíles(1981), *Antropología general*, Baranquilla: Colombia.
- Evans, Pritchard(1982), *La mujer en sociedad primitivas*, Colombia: Ediciones Península.
- Friedemann, Nina(1998), “San Basilio en el universo kilombo-África y

- Palénque-América”, in Adriana Maya, (ed.), *Los afrocolombianos. Geografía humana de Colombia*. Tomo V, Colombia.
- Friedemann, Nina/Richard Cross(1977), *Na Gombe: Guerreros y ganaderos en el Palénque de San Basilio*, Colombia: Carlos Valencia editorial.
- Gutiérrez de Pineda(1976), *Familia y cultura en Colombia*, Colombia: Ascofame.
- Jaramillo Uribe,(1998) “Mestizaje y diferenciación”, *Ensayo sobre historia social colombiana*, Colombia: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 María Pia Mopollón Pupo(1991), *Estructura, dinámica y cambio de la familia y el cuagro en el Palénque de San Basilio*, Colombia: Universidad Los Andes.
- Miesel, Adolfo(1983), “Esclavitud, mestizaje y hacienda en la provincia de Cartagena 1533-1851”, *Desarrollo y Sociedad*, No. 4, Colombia: Cede Uniandes.
- Orlando Fals Bórda(1975), *La cuestión agraria*, Colombia: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 Patrick Singh et al.(eds.)(1998), *Palénque de San Basilio*, France: l'Association En la mar, presidée par Corinne.
- Salomón Kalmanovitz(1975), “El Regimén agrario durante la colonia”, *La Ideología y Sociedad*, No. 13.
- Schwegler, Armin(1996), *Chi ma Kongo: lengua y ritos ancestrales en Palénque de San Basilio*, Tomo II, Frankfurt, Madrid: Vervuert Verlag.
- Zeuske(1998), “El Cimarrón y las consecuencias de la guerra del 95. Un repaso de la biografía de Esteban Montejo”, *Revista de Indias*, Vol. LVIII, No. 212.